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종단 분석

박 정 주¹⁾ · 정 주 영²⁾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종단적 변화 추이와 그에 대한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고차적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종단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2006년도)부터 5차년도(2008년도)까지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 중 대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체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평균 초기치는 3.397이었으며 평균 변화율 .146씩 증가하는 선형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2-3차년도 사이에 가장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고 전체 증가의 85.2%가 3차년도 내에 이루어졌다. 둘째,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율의 속도가 빨랐다. 셋째,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개인차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차 예측 변수로 투입한 성별과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은 변화율에만 유의하고 학교 유형은 초기치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 준비행동 증가율 속도가 빠르고 전문대학 학생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진로 준비행동 초기치가 높았다.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점차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직업세계의 변화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업세계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진로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진로관련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수준 혹은 진로 미결정 등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고, 이와 더불어 개인의 특성과 진로 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지적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등이 매우 중요한 변인들로 취급되어져 왔다(Slaney, 1988; Winer, 1992). 반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하는 진로준비

1)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2)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김봉환·김계현, 1997). 그 결과로 진로 분야에 있어서는 인지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행동에 대한 발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법 개발에도 소홀해 왔다. 아무리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진로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진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로 결정과 준비행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대학생들은 고등교육을 통하여 전공 지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 문화,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성, 인지발달, 세계관 및 가치관의 발달과 변화를 경험한다(Astin, 1993; Kuh et. al, 2005; Gruin et al., 2002). 또한 대학은 생애 발달 주기에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됨과 동시에 그러한 전환점이 촉발되도록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내재한다(Super, 1998; Zunker, 1998).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여러 고민 사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한정신, 1991).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공무원 학원이나 어학원으로 예비 고교 졸업생들이 몰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 시험현장에서도 예비 대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잘못된 진로 준비는 고학년이 될수록 오히려 진로를 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졸업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도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8.3%로 나타나고 있다(전자신문, 2010.01.13).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진로 준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연6회 정도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S대는 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겨울방학 취업캠프를 열어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단계별 집중 학습을 실시해 실전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K대는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누어 취업캠프를 운영하는데, 1,2학년 캠프에서는 자기분석을 통한 진로목표 설정, 취업선호도 검사, 대학생활의 노하우 등에 초점을 맞추고, 3,4학년 캠프에서는 취업 전략과 입사 지원서 작성방법, 실전 모의면접 등에 집중하여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남CBS, 2010.01.06).

그동안의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진로 준비행동과 개인의 특성 중 심리적 성향이나 성격을 주요 변인으로 탐색(박행모·문승태, 2005; 이계경·김동일, 2004; 이주희, 2004; 손은령·손진희, 2005)하거나, 진로 준비행동과 학년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이계경, 2004; 김봉환·김계현, 1997; 손은령·손진희, 2005)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거나 성별 진로 준비행동 변인들의 일원변량 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횡단면적 결과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 준비행동이 개인별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추이를 탐색하는 것이 학년 진급에

다른 진로 준비행동의 진정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과연 진로 준비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 궤적에서 개인차를 나타내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시점에서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진로 준비행동의 중장기적 발달 궤적을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예측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서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 상태 및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여 향후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고려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발달 이론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진로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성숙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 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며(김봉환·김계현, 1997),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 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 전문화단계로 구분한다(김충기, 2000).

진로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Super(1953)는 Ginzberg의 이론을 보완한 이론으로 직업 선택 및 생애 발달에 대해 분석, 종합하여 포괄적인 발달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인간의 능력, 흥미, 인성 등의 차이에 따라 각각 적합한 직업 환경이 있다고 보았고, 생애 발달이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에 걸쳐서만 발달한다는 Ginzberg(1951)의 이론을 수정하여 생애 전 시기에 걸쳐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Super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의 4단계로 진로 단계를 구분하였으나, 반드시 단계 별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진로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장기(growth stage)는 출생에서 14세까지의 시기로 가정과 학교에서 주의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차차 사회적인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기 된다. 탐색기(exploration stage)는 15세에서 25세까지의 시기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기회 등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보는 시기이다. 확립기(establishment stage)는 25세부터 44세까지가 해당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유지기(maintenance stage)는 4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개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 기능이 쇠퇴해짐에 따라 직업 세계에서 은퇴하게 되며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찾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발달 이론을 학제에 대비하여 보면, 성장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 탐색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단계, 확립기는 대학교 후반기와 졸업이후로 볼 수 있다(박효정, 1999). 진로 의식에 대한 발달적 견해에 의하면, 진로 의식의 성숙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인식, 탐색, 준비 및 전문화의 단계를 거치고(강무섭·박영숙, 1984),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근본이 생후 초기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진로지도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충기, 1990).

초·중·고·대학교시기를 중심으로 발달 이론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초등학교시기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단계 및 탐색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 활동과의 관계 이해, 각 진로 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 학력, 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의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사고하며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충기(1986)는 진로 인식을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시기로서 진로와 관련하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전공계열(학과)을 선택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 선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정윤경, 2006).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82%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율이 실업계 학생 대비 67.6%에 이르는 상황이다(한국대학신문, 2010.01.07). 이후 대학교 시기는 본격적인 사회 생활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것은 모든 직업 선택과정의 기본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시기는 공식적인 학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진로선택 및 진로 준비과정이 대학교 단계의 발달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손은령·손진희, 2005). 이로 인해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 및 준비에 대한 압박감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0).

하지만 최근의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은 개인차원에서의 취업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전의 획일적인 암기위주의 입사시험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서류전형, 역할연기, 발표토론, 집중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 선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여러 종류의 취업 준비를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대학 내 취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동문 선배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들이 취업 박람회나 캠프를 여는 것은 이미 일반화됐고 취업 관련 교과목 개설도 확대할 뿐 아니라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관련된 과목들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추세도 점차 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개인적 준비와 대학 차원에서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 현황을 감안하여 대학생의 진로선택 및 진로 준비행동에 관여되는 여러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 및 관련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진로 준비행동

진로 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 특히 진로 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 개념은 진로 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손은령·손진희, 2005). 또한 이 진로 준비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내적 통제성, 자아존중감, 동기 등과 관련되어 있다(안권순·한건환, 2002). 진로 준비행동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는 진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용 등이 있다(손은령·손진희, 2005). 보통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은 대학원 진학과 영어, 각종 시험 등의 취업 준비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진로 준비행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이것은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 또는 각 직업에서 원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획득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유미정·최애경, 2008).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대학생의 개인 변인, 대학의 특성, 대학 교육 이외의 경험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특성 중 심리적 성향이나 성격을 주요 변인으로 탐색하는 연구(박행모·문승태, 2005; 이제경·김동일, 2004; 이주희, 2004; 손은령·손진희, 2005)가 많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향성을 지닌 학생들이 진로 탐색, 계획, 준비행동에 적극적이며 평소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준비에 소극적이며, 직업 탐색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준비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기간 중 진로를 탐색, 선택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특별히 시험 준비를 하거나 토익과 같은 외국어를 연마한 경우 진로 준비 만족도가 높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진로 준비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박성재·반정호, 2006).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학의 진로상담 및 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충기, 1995; 손은령·손진희, 2005; 황용연, 1992; 박행모·문승태, 2005; 이제경·김동일, 2004; 이기중·김은주, 2006; 안재희, 2006).

진로 준비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 내외 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과 진로 준비 행동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손은령·손진희, 2005). 진로에 관련된 연구를 몇 가지 개인적 요인별로 살펴보자면, 성별에 대해 Elizabeth(2000)는 학업 성취도, 진로 탐색행동, 자아 존중감, 여성의 정체성이 대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미

치는 예언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 중심의 직업, 여성 중심의 직업, 통성의 직업 (sex-balanced careers) 집단사이에 효능감과 기대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Rooney & Osipow(1992)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직업적 자아효능감에서는 남녀 간에 의미 있는 성 차이가 있었고 학년과 나이에 따르는 차이는 없었다. 진로와 학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성숙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많았다(이성진, 1982; 김원중, 1984). 진로 준비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 간의 관계를 보면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 내외 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 간의 상관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과 진로 준비행동과의 상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제경, 2004). 반면 권소희(2000)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의식 성숙 점수가 조금씩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고, 정채기(199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은 계열 선택으로 인해 진로 선택 및 준비가 된 상태라서 상관관계가 낮다고 설명하였다. 학교계열과 관련된 연구(김상혁, 2001; 김선혜, 2000)에서는 인문계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이경옥(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이 인문계, 실업계와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진로 결정수준은 진로 결정(career decision) 혹은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이라는 이분법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손은령·손진희, 2005).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 결정수준은 대학 졸업 이후에 일과 관련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대학 학년 직급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1,2,3학년 동안의 변화보다는 4학년 진급 후의 변화가 더 크다고 하였다(김봉환·김계현, 1997). 손은령·손진희(200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 준비행동이 구직활동, 직업탐색 또는 면접 훈련 등과 같은 실제적인 노력과 연습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장벽 보다는 학년의 발달적 변인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과 학년간의 관련성에 대한 위의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정확한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년별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추이를 심도 깊게 탐구되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지난 2004년 전국 6,000명의 학생(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과 그들의 학부모 및 담임교사, 학교행정가를 표본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05년~2008년에 동일한 표본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KEEP의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학생이므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시점인 2005년도부터 2008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총 4개 년도에 걸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학생들은 총 2,050명이며 성별 및 학교 유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성별	남	962	46.9	2,048(99.9)
	여	1086	53.0	
학교 유형	전문대학(2·3년제)	808	39.4	1,847(90.1)
	4년제 대학	1039	50.7	

* 종단자료의 특성상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어 총합이 2,050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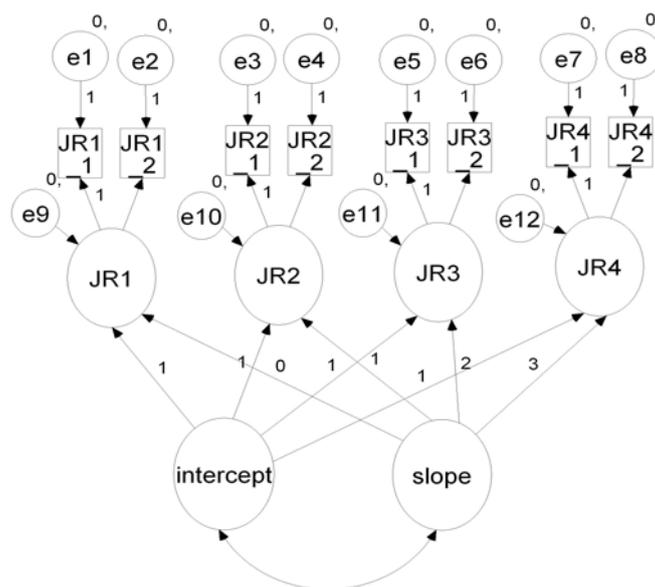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진로 준비행동은 본인이 미래에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지 정도로 측정하였다. 진로 준비행동은 본인이 갖고자 하는 미래 직업의 업무내용(하는 일)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전망 및 보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약간 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예측 변수로 설정된 성별은 남자(=1)와 여자(=2)로, 학교 유형은 전문대학(2·3년제)(=1)과 4년제 대학(=2)으로 코딩된 범주형 변수이다. 주요 변수들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4개년 간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3. 분석 방법

대학생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 준비행동이 개인별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사용하였다. 어떤 변수의 변화 또는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잠재성장 모형은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된 측정 변수를 사용한다. 이 측정 변수는 한 문항으로부터 얻어진 값이거나 또는 문항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문항의 합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 문항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없고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증할 수 없어 종속 변수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홍세희·유숙경,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종속 변수를 잠재 변수로 사용하여 측정 오차를 통제하는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 오차를 통제한 후 진정한 변화를 알아볼 수 있고 변화하는 것이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개념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Sayer & Cumsille, 2001).

각 조사 연도별로 진로 준비행동 문항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선형 고차 잠재성장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발달 궤적을 나타내는 함수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모형 확장 단계에서 예측 변수인 성별과 학교 유형 변수를 투입하여 그러한 발달 궤적에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종단 자료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료의 결측치는 AMOS 5.0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Arbuckle, 1996)고 알려져 있다.



<그림 1> 기본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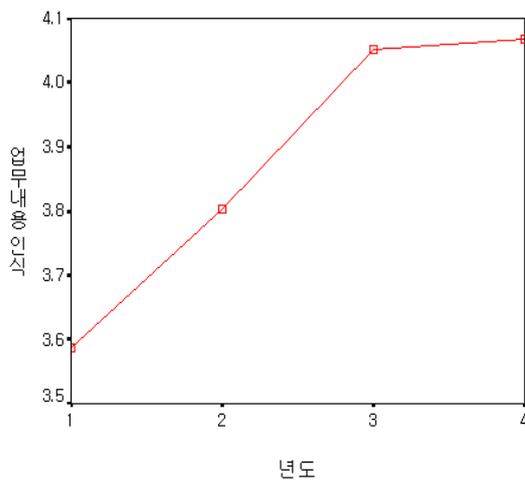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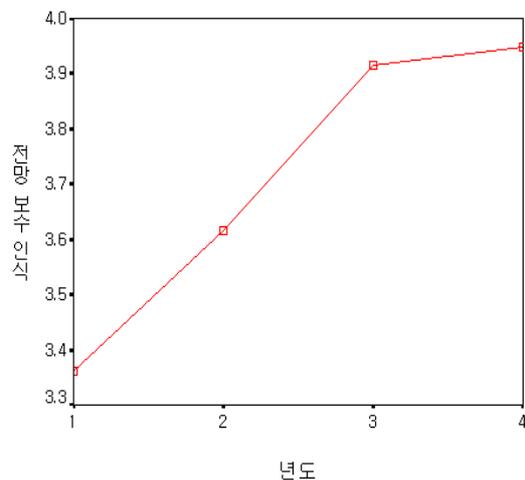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진로 준비행동을 측정하는 2개의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 준비행동을 측정하는 측정 변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인식과 전망 및 보수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두 변수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진로 준비행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변화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은 그 모습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2> 종속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무내용 인식정도	3.59	.734	3.80	.747	4.05	.668	4.07	.704
전망·보수인식정도	3.36	.786	3.62	.790	3.92	.673	3.95	.733



<그림 2> 업무내용 인식 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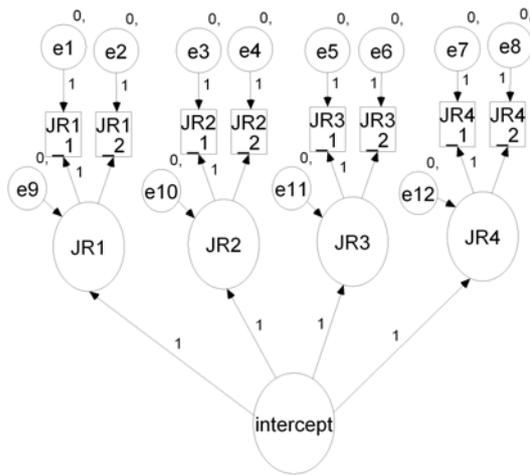


<그림 3> 전망·보수 인식 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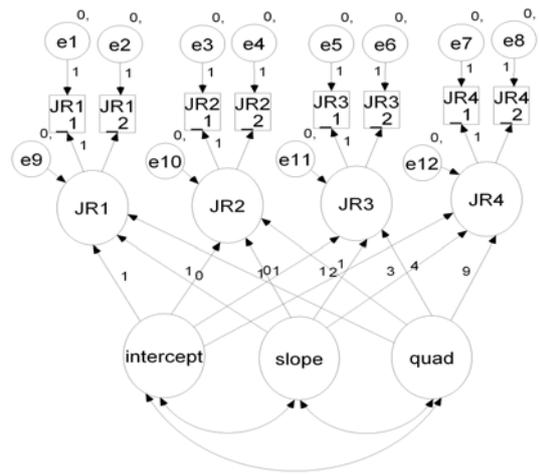
2.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 함수 분석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변화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 모형(기본 연구 모형), 2차 함수 변화 모형 총 3가지의 잠재성장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2>는 무변화 모형을, <그림 3>은 2차함수 변화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선형 변화 모형은 <그림 1> 참고). 무변화 모형은 초기값을 1로 설정한 모형으로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 변화 모형은 변화율을 0, 1, 2, 3으로 고정하여 진로 준비행동이 4개년도 동안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며, 2차함수 변화 모형은 선형 모형 변화율에다 2차 함수 변화율을 0, 1, 4, 9로 고정한 모형이다.



<그림 4> 무변화 모형



<그림 5> 2차함수 모형

본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χ^2 값 외에 상대적합도 지수인 IFI, TLI, CFI, RMSEA를 사용하며, 각 지수의 수용 수준은 IFI,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10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면,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변화 모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 χ^2 값(277.360)이 매우 크고 적합도도 낮아 적절한 모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함수 변화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에 비해 IFI, TLI 지수가 .002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음분산 추정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변화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연구모형인 선형변화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가 매우 높아 대학생의 진로인식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진로 준비행동의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모형	χ^2 (df)	IFI	TLI	CFI	RMSEA
모형1	무변화 모형	277.360(26)	.897	.857	.897	.069
모형2	선형변화 모형	61.154(23)	.984	.975	.984	.028
모형3	2차함수 변화모형	-	.986	.973	.986	.030

* 모형3은 음분산 추정으로 χ^2 값을 추정하지 못함.

최종 선택된 선형변화 모형에서 얻은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추정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는 3.397, 변화율은 .146으로 나타났고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은 -.384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차년도 전체 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의 평균값이 3.397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변화율이 정적이기 때문에 학년의 증가에 따라 .146씩 진로 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이기 때문에 초기치가 높았던 학생의 변화율이 초기치가 낮았던 학생에 비해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 준비행동의 분산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마다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가 다르고 그 변화율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의 추정치

구분	평균	분산
초기치(SE)	3.397(.021) ^{***}	.241(.032) ^{***}
변화율(SE)	.146(.010) ^{***}	.025(.008) ^{**}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SE) / 상관	-.030(.014) [*] / -.384	

*p<.05, **p<.01, ***p<.001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량이 매년 어떻게 변화하는 지 추정하기 위해 1차년도의 기울기 요인계수를 0, 4차년도의 기울기 요인계수를 1로 고정한 후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기울기를 추정해 보았다. <표 5>는 각 년도의 기울기 추정치를 나타낸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추정치는 각각 .299, .852였으며 모두 유의했다. 이것은 매해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량이 상이했으며 1-2차년도 사이에 전체 변화량의 29.9%, 1-3차년도 사이에 전체 변화량의 85.2%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은 2-3차년도 사이에 가장 많은 증가가 있으며 3차년도까지 전체 증가의 85.2%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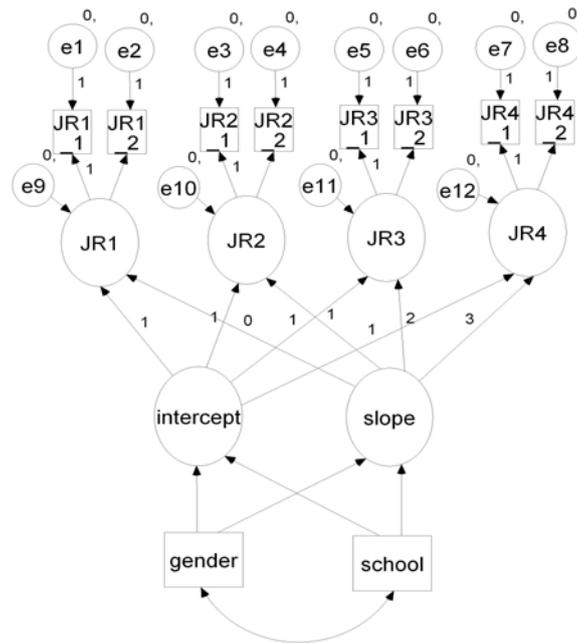
<표 5>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매년 변화량 추정치

구분	추정치(SE)
1차년도 진로 준비행동 ← 기울기	.000
2차년도 진로 준비행동 ← 기울기	.299(.066) ^{***}
3차년도 진로 준비행동 ← 기울기	.852(.071) ^{***}
4차년도 진로 준비행동 ← 기울기	1.000

*p<.05, **p<.01, ***p<.001

3. 진로 준비행동 변화에 대한 예측 변수 분석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 양상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 선택한 잠재성장 모형에 <그림 6>과 같이 성별과 학교 유형 변수를 예측 변수로 투입하여 보았다. <표 6>는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잠재 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예측변수 모형

<표 6>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

$\chi^2(df)$	IFI	TLI	CFI	RMSEA
85.101(36)	.980	.970	.980	.026

학생 개인 특성인 성별과 학교 유형을 투입하여 추정된 경로계수는 <표 7>과 같다. 진로 준비행동에 있어 성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정된 초기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75, 변화율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410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남자 1, 여자 2의 변수 값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가 높고, 변화율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치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고 변화율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여학생의 진로 준비행동 변화율이 남학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학교 유형의 영향력은 초기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086,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계수 -.110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전문대학(2·3년제) 1, 4년제 대학 2의 변수 값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전문대 학생이 4년제 학생에 비해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치에 대한 영향력만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전문대 학생의 초기 진로 준비행동이 4년제 대학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잠재 성장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

경로	추정치(SE)	표준화된 추정치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 ← 성별	-.065(.038)	-.075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율 ← 성별	.082(.019) ^{***}	.410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 ← 학교 유형	-.075(.038) [*]	-.086
진로 준비행동의 변화율 ← 학교 유형	-.022(.019)	-.11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종단적 변화 추이와 그에 대한 개인차를 알아 보기 위해 고차적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종단 분석을 하였다.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의 평균 초기치는 3.397, 평균 변화율은 .146으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전체 대학생이 미래 직업에 대하여 평균 3.397의 진로 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학 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 .146씩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 준비행동이 증가가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 시절의 전체 증가량의 85.2%가 3차년도 안에 이루어지며 2-3차년도 사이에 가장 많은 증가가 이루어지고 3-4차년도 사이에는 가장 적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대학 1, 2, 3학년 동안의 변화보다는 4학년 진급 후의 변화가 더 크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봉환·김계현, 1997)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가 예전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진로발달 이론에서 고등학교 시기가 진로 준비단계, 대학교 시기가 진로 전문화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보다 조기에 진로 준비가 완료되고 고학년인 3,4학년에는 진로 준비의 다음 단계인 진로 계획 및 실천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 프로그램은 저학년, 혹은 예비 대학생들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것은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초기치가 낮은 학생에

비해 증가율의 속도가 빠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초기치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율의 속도가 빠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이미 준비도가 높아서 진로 준비행동 단계에서 벗어나 진로 계획 및 실천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개인차는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학생마다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가 다르고 그 변화율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 따라 개인차의 예측 변수로 투입한 성별과 학교유형은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 성별은 진로 준비행동의 초기치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로 준비행동은 초기치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변화율에 있어서 여학생의 증가 속도가 남학생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 성숙에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구혜선, 2002; 신미자, 2002; 이기학 외, 2004; 조아미, 2002)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학교 유형은 변화율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초기치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대 학생과 4년제 대학생은 변화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초기치에 있어서는 전문대 학생이 4년제 학생에 비해 초기치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 병립하는 고등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산업 현장이나 직업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직업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미래 직업에 대한 결정이나 인식이 4년제 대학 입학 학생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전문대학이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강무섭, 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 과정 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혜(2000). 학급풍토지각과 자아개념 진로선택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문계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6).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명자, 김용익(2003). ARCS동기유발이론을 적용한 실과수업이 아동의 진로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2), 103-117.
- 박행모, 문승태(2005).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18(2), 157-170.
- 박효정(1999).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자료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미자(2002). 자아 정체감과 양육 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권순, 한건환(2002). 청년기의 개인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36호, 73-102.
- 유미정, 최애경(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19권, 129-153.
- 이경옥(2002). 여고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 탐색.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 주장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 이성진(1984).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제경(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제경, 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103-115.
- 정윤경(2006).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 역할 정체감이 진로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한정신(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연구. 학생생활연구, 17, 1-53.
- 홍세희, 유숙경(2004). 다변량 고차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17(2), 131-146.
- 황용연(1992).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현황과 과제. 대학상담연구, 3, 17-30.
- Arbuckle, J. L.(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stin, A.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ollege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Elizabeth, Z. C.(2000). The predictive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career exploration, self-esteem, and feminist identity to the career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of college woma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Doctoral Dissertation.
- Kuh, G., Kinzie, J. Schuh, J., Whitt, E. & Associates (2005). Student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 San Francisco: Jossey-Bass.
- Rooney, R. A. & Osipow, S. H.(1992). Task-specific occupations self-efficacy scal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rototyp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4-32.
- Sayer, A. G., & Cumsille, P. E.(2001).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s. In Collins, L. M.& Sayer, A. G.(Eds.),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pp. 179-20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laney, R. 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B. Walsh & S.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33-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D. E. (198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 217-221.
- Winer, J.L.(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369-375.
- Zunker, V. G. (1998).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New Jersey: Prentice Hall.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jectory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and the difference among individuals. To achieve the purpose, the data related to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second to fifth of KEEP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was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 (LGM).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career preparation was increasing linear function. The intercept of average was 3.397 and the slope of average was .146. This means that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had information of career 3.397 units in the first year and developed a increasing of .146 per year. And between 2nd year and 3rd year was the most increasing year. The 85.2% of career information exploration was reached in 3rd year.

Second, the correlation of intercept and slope was negative. More specifically speaking, the more cognize information of career in the first year, the less change rate later on.

Third, there was difference among individuals in the trajectory of career preparation. Gender and type of school were important factor in difference among individuals. Female students had faster speed than male, and community college students had more career information in the first year than university students.